

농협에서 만난 여인

박 현 모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검진부장

물 발 2472호.
“지금부터 물품 확인합니다.”

채혈세트, 심전도계, 자궁암검사 세트 등등……. 만사불여(萬事不如) 튼튼이라고 우리는 출장 준비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도 대민친절 봉사를 다짐하는 ICC 구호를 외치며 박수 다섯 번, 짹 짹 짹 짹.

검진버스가 부웅 소리와 함께 출발한 시각이 아침 7시 10분. 우리는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는 교통방송 정보에 귀를 기울이며 시원스런 외곽도로를 달렸다. 검진시간에 맞추려고 액셀러레이터를 힘차게 밟으며.

그날, 그러니까 '97년 6월 10일 소래 농협에서 농협공제조합원 검진을 실시했는데, 나는 거기서 김일순이라는 멋진 여인을 만났었다. 그분은 그날 나를 보자 대뜸,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부터 했다.

나는 궁금한 마음을 감추고, “무슨 말씀이신지…….” 하며 바짝 다가섰다.

사유인 즉, '95년 6월에 농협공제조합원 검진을 받

으라는 통지서를 받고 농협에 검진을 나온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로부터 검진을 받았다고 한다. 그로부터 열흘쯤 후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혈액·X선 검사 등에서는 정상소견이었으나 자궁경부암검사 소견에 「ClassⅢ, 6개월 이내 재검진 요망. 염증 치료 요망」이라는 판정이 나왔다고 한다.

그녀는 그 즉시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와 전화상담을 한 후, 농협의 공제담당 이현수씨를 찾아가서 협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며 공신력이 있는 검진기관인가 등의 내용을 여러모로 알아보았다.

그러나 김씨는 그 후 자신이 하는 작고 큰 일 속에 파묻혀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살았다. 가정과 자신을 위한 하루 일과시간이 너무 짧다며 바쁘게 생활하던 어느날, 책장 속에서 우연히 검사결과표를 발견한 그녀는 아차 싶었다.

“내가 건강에 너무 소홀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김씨는 '96년 5월 말 경 수원에 있

는 건협 경기도지부와 시흥에 있는 구봉건 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았다. 한곳에서만 검사를 하면 못 믿을 것 같아서 두 곳에서 받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6월 초순에 나온 두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는 김씨의 눈을 의심스럽게 만들었고, 가슴은 콩당콩당, 머리 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표현할 수 없는 감정 속으로 빠져 들게 했다.

“자궁경부암 의심. 3차진료기관에서 정밀 검사 요망”이라는 결과는 제 마음을 한없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인생을 풍요롭게, 남들보다 잘 살아 보려고 노력했고 자식들도 남들보다 훌륭하게 키워 보려고 힘썼던 지난 날들이 떠오르면서, 이제는 내가 암으로 죽어야 한단 말인가 하는 생각에 한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지요.”

같은 해 6월말, 김일순씨는 잘 아는 분의 소개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자궁경부암 제 1A기 암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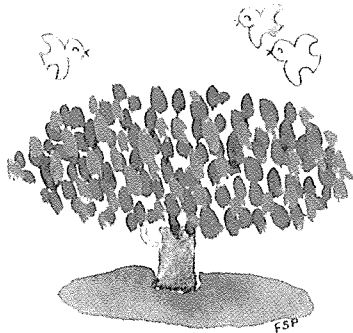
판정받고 그후 8주 동안 매주 5일간씩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정밀검사와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조직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초기 암으로 최종 판정되어 수술을 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만으로 완치될 수 있게 된 것을 김씨는, '하늘이 주신 뜻밖의 기회요 행운'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생각은 김씨에게 커다란 용기가 되어 주었고 나는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행운(?)은 이것 만이 아니었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그녀가 내야 할 총 진료비는 8백여만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공제계약자인 김씨는 뜻밖에도 소래 농협 공제담당자 이현수씨로부터 공제지급액 일천만원과 함께 병실 입원료를 별도 지급받았던 것.

김일순씨는 4년여 전 농협 부녀부장의 권유로 암 공제 보험을 소개받고 월 1만 5천 6백원의 보험료를 3년 6개월동안 불입했는데, 바로 이 암보험이 그녀의 암 치료에 큰 힘을 발휘했던 것이다.

그녀는, "보험회사도 많고 암 보험도 많지만, 농협 암 공제 보험이 타 보험보다 배 이상 저렴하고 가입자에게 여러 모로 이득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라며 농협 암공제 예찬론을 펼치면서, 담당자인 이현수씨도 집안 식구 대하듯 정성스럽고 편안하게 보살펴 주



었다며 정말 감사드리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김일순씨는 소래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다. 한때는 직함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현재는 안정된 생활과 건강회복을 위해 모든 직함을 버리고 가정생활에 전념하고 있었다.

"암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나의 질문에 김씨는,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의 저의 불찰입니다. 건협 경기지부에서 처음 검사를 받았을 때의, 염증치료와 6개월 이내에 재검진을 받으라는 결과를 무시하고 1년여 방치했던 것이 큰 병을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자신의 무심함을 후회했다.

김씨는, 검사를 받기 전에 쉽게 느낄 수 있는 특이 증상은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비물이 평소보다 약간 늘어났고 나쁜 냄새가 나는 듯한 기분을 한동안 가졌었다고 말했다. 병원에 기파야 겠다는 생각을 잠시 하긴 했었지만 생각일 뿐이었고 농협 공제계약자 검진에서 비로소 검사를 받아 이처럼

건강해 졌다며, 농협과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몇번이고 되풀이했다.

공제 담당자 이현수씨에 따르면, 보통 뚱뚱한 분들이 마음이 넓고 태평스러운데 비해 김일순씨는 꼼꼼하고 까다로우며 남의 잘못도 그 자리에서 꾸짖는 직선적인 성격을 가진 것 같다고 한다.

나는 새삼 느끼게 되었다. 약간의 이상증세라도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병을 키우고 건강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직업 상의 스트레스나 까다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건강 유해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등등.....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자신의 건강을 지나치게 자만하지 말고 건강할 때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약간의 이상증상이라도 그냥 지나쳐 버리면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이 온다는 것을 유념하여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사회 활동을 영위하여 평생을 무병장수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 싶다.

더불어서, 건강에 대한 상담을 원하실 때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찾아 주시면, 모든 분들의 건강의 길잡이가 되어드릴 것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